

중도입국청소년의 직업훈련에 관한 참여 실행연구: 조선족 청소년을 중심으로

김진원* · 송민경** · 이슬아*** · 유 멩****

초 록

본 연구는 중도입국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직업훈련 과정에 참여 실행연구 방법을 적용하여, 참여 청소년의 변화 과정과 실천가 및 연구자의 개입과정 등을 깊이 있게 탐색해보았다. 나선형 실행연구 모델을 토대로 총 3번의 자기반성적 실행과정이 이루어졌으며, 총 12명이 참여하였다. 직업 훈련과정(인턴 프로그램)을 통해 참여청소년들의 기술적 직업능력이 향상되었으며, 반복적 실행과정 동안 점진적으로 역할을 부여하고 확장함으로써 그들의 긍정적인 변화가 역동적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참여청소년들에게는 미숙한 언어 문제와 그들을 둘러싼 외부사건 및 생활시간 관리에 대한 어려움 등도 존재하였다. 실천가는 실행과정에서 참여청소년들의 생활시간 관리에 매몰되어 본연의 역할을 고민하였으며, 점차 다양한 역할수행으로 인한 정체성 혼란을 경험하였다. 이를 통해 실천가는 다중역할의 부담 완화를 위해서 참여청소년들이 처한 고유한 상황에 대한 사례관리 측면의 개입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연구자들은 연구초기에 실행연구에 대한 모호성과 역할 혼란을 느꼈으나 실행과정 동안 연구자의 모습에서 벗어나 참여자의 모습으로 함께 어울릴 때 내적 성장을 경험했다. 일련의 경험을 근간으로 참여 실행연구를 통한 긍정적 성장을 위해서는 모든 참여자들의 능동적 참여가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실천개입과 연구의 중간자적인 맥락으로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적 실행과정을 시도해보고 각 참여자 측면의 변화를 살펴보았다는 것에 의의가 있으며, 연구결과를 통한 실천적·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중도입국청소년, 참여 실행연구, 직업훈련, 자기반성적 실행

*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제1저자

**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 교신저자, buta79@korea.kr

*** 무지개청소년센터

****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I. 서 론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외국인주민은 1998년 308,339명에서 2014년 1,576,034명으로 약 5배 증가하였는데, 만18세 이하의 외국인주민 자녀는 2009년 107,689명에서 2014년 204,204명으로 5년 만에 약 2배의 증가율을 보였다(통계청, 2015). 이는 우리사회가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을 지나, 그들과 함께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해야 함을 시사한다.

더불어 현재 중도입국청소년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들 대다수가 후기 청소년인 만큼 초기 한국사회 정착과정에서 성인기를 맞이하게 된다. 이들은 한국사회 적응과정에서 진로발달 과업의 시기를 거치기 때문에 다중의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서덕희, 2014).

이때 중도입국청소년들¹⁾의 대다수가 17세 이상이기 때문에(조혜영, 양계민, 2012), 연령으로만 따지면 직업교육 또는 전문교육 체계로 진입할 시기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중도입국청소년들은 본국에서 부모의 부재로 학교부적응 및 기초교육의 공백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으며(윤명숙, 조혜정, 박수영, 2012), 국내 입국 후에도 교육적 공백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다(류방란, 오성배, 2012). 그래서 대체적으로 대안학교나 민간기관에서 한국어를 습득하고 일반학교에 진입한다. 그런데 일반교육 과정에 진학한다 해도 연령과 학급의 불일치, 출신국과 다른 학교 시스템, 교육 내용 및 문화 차이, 그로인한 심리적 거리감 등으로 인해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강대중, 2013; 김민아, 이재희, 라미영, 김기현, 2014; 류방란, 오성배, 2012).

따라서 청소년기 이후에 입국한 중도입국청소년은 상당수가 제도권 교육 밖에 위치할 가능성이 크다(오성배, 서덕희, 2012). 제도권 교육 밖의 중도입국청소년들은 정체감 형성도 어렵고, 사회생활을 위한 적합한 기술도 없는 불안정한 상황에서(이소라, 2012)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경우가 많다. 또, 중도입국청소년은 자신의 진로 설정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진로 관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경우가 적다(오성배, 서덕희, 2012). 이런 맥락에서 중도입국청소년들에게 기

1) 본 글에서는 중도입국청소년이라는 용어를 주요 정책대상인 '결혼이민자가 본국에서 데리고 온 진혼 자녀'로 한정하지 않고, (국제결혼가정의 외국인 부모가 본국에서 성장한 자녀를 국내로 데려온 것에 한정하는 정책대상화의 관점이 아닌) 넓은 의미로서 이주배경을 지닌 청소년으로 사용하였다.

초교육뿐만 아니라, 직업진로교육 관련 지원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다. 이에 맞추어 최근 실천 현장에서는 중도입국청소년들의 직업진로가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그들을 위한 취업훈련 프로그램이나 서비스 등의 체계적인 구축은 미흡한 상황이라고 판단된다.

중도입국청소년들에게 적절한 직업진로교육 등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관련 연구들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은 주로 본국에서 부모와 별거했던 조선족 아동/청소년 관련 연구(윤명숙 외, 2012; 조복희, 이주연, 2005, 2006), 중도입국청소년들의 한국사회 및 학교적응 관련 연구(강대중, 2013; 류방란, 오성배, 2012; 엄명용, 2013; 이병철, 송다영, 2011)로 진행되어 왔다. 물론 기존에 중도입국청소년의 진로 관련 연구(오성배, 서덕희, 2012; 조혜영, 양계민, 2012)들도 소수 진행되었지만, 주로 진로의식 및 진로준비행동을 탐색적으로 살펴본 것들이었다. 이들 연구들을 통해서 중도입국청소년의 국내 입국 전과 후의 실태, 학교적응과 진로의식 및 진로탐색행동 등의 모습을 살펴볼 순 있었지만, 직업진로교육과 관련된 구체적인 상황 등을 파악하기는 어려웠다. 단지 소수 연구들에서 중도입국청소년들에게 직업진로 관련 교육이 중요함을 소소하게 언급하고 있다(양계민, 조혜영, 이수정, 2009; 조달영 외, 2010).

이렇게 학문적 선행연구 및 실천 개입방법이 충분히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도입국청소년에 대한 진로지도가 중요한 사안으로 대두되는 만큼, 본 연구에서는 참여 실행연구 방법을 적용하여 연구와 실천개입 상의 구체적인 맥락들을 짚어보고자 했다.

실행연구는 참여자들이 자신들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들을 연구자들과 동등한 위치에서 탐구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방법론이다(남채봉, 2013). 실행연구 방법론은 문제와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한 실용적 연구방법론이며, 실천가와 클라이언트 및 연구자가 연구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 실천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와 수정으로 실천이론을 만들어 낸다는 장점이 있다(이시연, 1999). 이는 학술적 이론 정립이나 개입의 실증적 효과성을 검증하기보다는 주로 실천개입 전략의 발굴과 현장지식의 창출을 목적으로, 어떻게 하면 연구 참여자들에게 효과적인 개입을 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더 관심을 갖는다²⁾. 이를 통해 참여자는 역량강화, 실천가는 전문성 강화와 효과적인 실천 개입, 연구자는 연구의 실제성 부여 등의 이점을 가질 수 있다.

2) 그렇다고 실행연구가 이론 정립을 등한시하는 것은 아니다. 다른 연구방법론에 비해 실천실행을 강조함으로써 현장으로부터 실천지향적인 이론을 생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본 연구는 중도입국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직업훈련 과정에 참여 실행연구 방법을 적용하여, 모든 참여자들의 변화과정과 의미 있는 실천적 방법 등을 탐색해보고자 했다.

II. 연구 방법

1. 참여 실행연구

실행연구(action research)는 20세기 초 서구의 응용인류학의 발전을 토대로 정립되어 왔으며, 우리나라에는 1970년대 현장연구라는 이름으로 도입되었다(이용숙 외, 2005). 도입 초기에는 교육계를 중심으로 학교현장에서 교사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연구라는 의미로 현장조사(field research)와 혼용되었다(조용환, 2015). 그러나 최근에는 현장조사와는 맥을 달리하여, 클라이언트가 역량강화를 위한 변화의 주체로 참여하며 실천과 연구의 과정이 긴밀히 연결된 방법론으로 정립되고 있다. 즉, 실행연구는 전통적인 연구에서 바라보는 ‘클라이언트에 관한 연구’에서 탈피하여 ‘클라이언트에 의한’ 그리고 ‘그들을 위한 연구’로 간주된다(김미옥, 2009). 실행연구는 이론 정립에 대한 객관성이나 결과 보다 실천 개선에 관심을 둔 과정을 중시하는 연구이다(이용숙 외, 2005; 조용환, 2015). 이를 위해 반복적인 반성적 실천을 강조하며, 그 과정을 토대로 현장과 연구의 간극을 좁혀가는 사회적 과정이자 실천과정으로 간주된다(강현옥, 2013; 김미옥, 2009; 이금진, 2005; 이용숙 외, 2005; Kemmis & McTaggart, 2000; Reason & Bradbury, 2001).

참여 실행연구(Participatory Action Research)는 실행연구 방법 중 하나³⁾로 볼 수 있는데, 보다 더 ‘참여’를 강조하며 참여자의 역량강화를 통한 변화를 중요한 가치로 둔다(강현옥, 2013). 여기서 참여는 연구진이 현장에 다가간다는 의미에서 더 나아가 실천가, 이용자, 연구자 등 모든 연구 참여자들이 실천 활동과 지식 생산을 함께 추

3) 참여 실행연구가 실행연구 방법 중 하나라는 데에는 학자에 따라 이견이 존재 한다. 참여 실행연구와 실행연구를 구분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논쟁인데, 본 글의 논지를 벗어날 수 있기에 해당 논의는 생략한다.

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연구결과는 현장 활동(개입 등)의 개선과 참여자들이 변화를 향해 진일보하는 것이 되며, 그 과정을 통해 참여자 모두가 발전하게 된다(김미옥, 2009). 따라서 참여자 모두에 의해 연구와 활동이 수행될 때 실행연구는 의미가 있으며, 실행연구를 통해 현장으로부터 유용한 실천 지식을 산출하는 것은 완결된 명사형(knowledge)이 아닌 지속적으로 형성되는 동사형(knowing)인 지식성장의 과정으로 여겨진다(Reason & Bradbury, 2001).

단순히 참여만 강조하는 것은 변화에 대한 좁은 관점만을 이끌어 낼 수 있기 때문에 참여 실행연구에는 비판적 사회과학 전통의 분석과정이 접목되었으며, Kemmis와 McTaggart(2000)는 순환적·비판적 과정을 거쳐 참여자의 변화와 지식을 탐구하는 나선형 자기반성적 순환모형을 제시하였다. 그들에 따르면, 문제를 발견 한 뒤, [계획]-[실천과 관찰]-[과정 및 결과의 반성]-[수정 계획]-[재실천과 관찰]-[반성]의 반복으로 참여 실행연구는 진행된다.

본 연구에서는 나선형 자기반성적 순환모형을 토대로 프로그램 참여자들, 실천가 및 연구자들이 함께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실행 및 관찰, 반성, 계획 수정의 순환적이며 반복적인 과정을 수행했다. 이를 도식으로 표현하면 그림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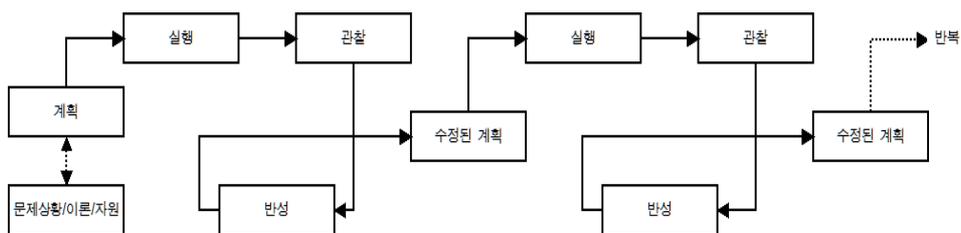


그림 1. 참여적 실행연구 모형(Kemmis & McTaggart(2000)의 모형을 수정함)

2. 연구의 실행 배경

본 연구의 현장은 A시에 위치한 이주배경청소년을 지원하는 M센터이다. 해당 센터는 이주배경청소년 정착·통합지원 및 역량개발, 청소년 인식개선 등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제공 중에 있다. 연구자들이 M센터에 접촉하였을 당시, 현장의 실무자들은 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는 초기지원 및 진로탐색 프로그램에 대한 연장선상에서 직업

훈련을 제공할 수 있는 인턴십 프로그램을 모색하고 있었다. 실무자들의 경험에 따르면, 초기 정착 지원과 진로탐색 프로그램의 제공 이후, 곧바로 이주배경청소년들을 취업으로 연계 할 경우 많은 문제들이 나타났다고 했다. 이주배경청소년은 노동시장으로의 진입 자체가 어려우며, 취업한다고 하더라도 단순 노무직⁴⁾에 종사할 가능성이 높고 업무미숙련 등의 사유로 근속기간도 매우 짧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에 입각하여, M센터는 2013년 하반기부터 이주배경청소년들이 안정적인 직업진로의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전문직업인으로서 특정기술을 교육·훈련 할 프로그램을 모색하였다. 그 일환으로 해당 센터는 다양한 직업 종류 중 센터 이용자들이 선호하는 직종⁵⁾과 재단 내 설립된 카페 공간⁶⁾ 및 교육장 등의 자원을 고려하여 바리스타 직업훈련 인턴십 프로그램을 구성해가고 있었다. 연구 개시 전 센터는 약 반년정도 바리스타 인턴십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으며, 프로그램의 구조화가 좀 더 필요하다는 욕구를 지니고 있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사회복지 실천 경험이 있는 연구진이 센터에 접촉하여 실행연구에 대한 설명과 그로인한 실천의 강점에 대해 피력하였다. 연구진들은 반실천가로서 프로그램 활동에 함께 참여하는 것을 토대로 연구 및 실천을 병행하기로 센터와 협의하였다.

3. 연구 참여자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실천가 1명, 연구자 3명, 참여청소년(중도입국청소년) 8명으로 총 12명이다. 실천가는 해당 센터에서 초기지원 및 상담업무를 담당하였으며, 인턴십 프로그램의 주담당자로 발령 받으면서 어떻게 하면 참여자들의 변화를 효과적으로 이끌어 내고 프로그램을 체계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욕구로 실행연구에 참여하였다⁷⁾. 연구자 2명은 사회복지 실무 경험이 각각 약 6년, 약 3년 정도 있으며, 다문

4) 주로 막노동, 공장 잡부, 택배, 식당 청소 등의 직업을 가지며, 대부분 비정규직이나 일용직, 단기알바 형태로 고용된다고 한다.

5) 실천·경험적으로 당시 센터를 이용하던 이주배경청소년들은 바리스타, 미용사, 파티시에(르), 판매원 등을 선호하는 편이었다.

6) 다문화청소년이 편안한 분위기에서 차와 함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설립된 장소이다.

7) 추가적으로 실천가는 상담심리학 전공의 석사수료생으로 연구자로서의 정체성과 재능도 함께 지니고 있음을 밝힌다.

화 관련 분야의 연구를 진행한 배경을 가지고 있다. 나머지 연구자 1명은 사회복지학으로 국내에서 다년간 유학생생활을 한 중국인으로 참여청소년들과 원어로 소통이 가능하여 통역을 담당하였으며, 이전에 다문화 관련 연구에서 통역 및 번안을 수행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연구자들은 반실천가의 입장으로 참여하였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중도입국청소년들은 해당 센터에서 초기지원 서비스와 직업탐색 프로그램을 이용한 뒤, 진로를 바리스타로 희망하여 본 실행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였다. 참여청소년들은 한국에 온지 1년 이상 된 18세~25세의 청소년들이었으며, 1명을 제외하고 조선족 출신이었다. 참여청소년들은 모두 남자로 구성되었다. 청소년기는 성별에 따라 신체적·정서적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중도입국청소년을 구성하고 있는 독특한 상황 역시 성별에 따라 삶의 대처 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센터에서 그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능력 검정을 해본 결과, 4명은 일상생활 수준의 의사소통이 가능한 정도인 ‘중’ 수준이었으며, 3명은 일상생활의 소통이 일부 가능하지만 난이도가 있거나 복잡한 수준의 의사소통은 어려운 ‘하’ 수준이었다. 탈북 출신의 1명은 의사소통에 전혀 문제가 없는 수준이었다. 인턴십 프로그램은 기수별로 실행하였으며, 각 기수별 두 단계로 진행하였다. 참여청소년들은 먼저 바리스타 직무 훈련 기간을 가진 뒤, 다음단계로 바리스타 인턴으로 카페에서 근무하는 형태로 참여하였다. 표 1은 본 연구 참여자들의 간략한 정보를 제시하고 있다.

참여청소년, 실천가, 연구자는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세부 활동들을 함께 수행하였는데 역할을 구분해보면 다음과 같다. 실천가와 연구자는 반실천가이자 반연구자의 입장으로 참여하며, 프로그램의 초기 기획 및 사업 운영, 자원개발 등을 주도하였다⁸⁾. 참여청소년들은 프로그램의 이용자이자 반실천가로서 프로그램의 평가 및 수정 기획에 참여하였다. 실행 결과의 분석은 실천가, 연구자, 참여청소년 모두가 반연구자의 입장에서 합의적 동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토의를 지속하여 도출하였다.

8) 물론 연구 초기부터 각 역할들이 명확히 구분되었던 것은 아니며, 실천가와 연구자의 역할과 프로그램 참여정도가 동등하다고 할 순 없다. 본 연구는 특정 기관 내의 특수한 환경 세팅에서 구성되었기에 반실천가로서 참여하는 연구자들이 프로그램에 관여 할 수 있는 정도에 한계가 있음을 시인한다. 그 때문에 연구자들은 실천가와 참여청소년들의 동반자로서 함께 고민하며 활동하면서도 역할 모호성을 느끼기도 했다. 추가적으로 본 연구는 나선형의 반성적 성찰을 통한 반복적 실행과정을 거쳤기에 각 역할은 실행과정이 발전될수록 공고히 되었음을 밝힌다.

표 1
연구 참여자

연번	구분	나이	출신	한국어 능력	인턴십 준비훈련 기간	인턴 기수	비고
1	참여자1	25	탈북	상	-	1기 (5.09~7.06) 매니저 (7.07~12.19)	
2	참여자2	18	조선족	하	5.09~5.30	-	중도탈락
3	참여자3	18	조선족	하	5.09~6.17 7.22~8.18	1기 (6.18~7.22) 1기 연장 (7.22-8.21) 2기 (8.18~9.26)	2기 이후, 비공식참여
4	참여자4	19	조선족	하	5.09~6.17	1기 (6.18~7.22)	
5	참여자5	18	조선족	중	7.22~8.18	2기 (8.18~9.19)	종결 10.17
6	참여자6	19	조선족	중	7.22~8.18	2기 (8.18~9.26)	2기 이후, 비공식참여
7	참여자7	18	조선족	중	7.22~8.18 9.27~10.22	2기 (8.18~9.26) 3기 (10.21~11.28)	종결 12.19
8	참여자8	19	조선족	중	9.27~10.22	3기 (10.21~11.28)	종결 12.19
9	실천가	31	한국	상		4.24~12.19	
10	연구자1	35	한국	상		4.24~12.19	
11	연구자2	32	한국	상		4.24~12.19	
12	연구자3	29	중국	상		4.24~12.19	

4. 실행기간, 자료수집 및 분석

본 연구의 총 실행기간은 2014년 4월 24일부터 2014년 12월 19일까지이다. 실행과정은 나선형 실행연구 모델을 토대로 프로그램 계획, 실행, 평가 및 반성, 계획 수정 후 재실행을 반복하였다. 대략 3개월의 주기로 총 3번의 실행과정을 반복·진행하였다.

실행과정의 분석을 위한 자료 수집은 다원적으로 진행하였다. 첫째, 연구의 모든

참여자는 활동일지를 작성하였다. 활동일지에는 인턴 프로그램의 진행 내용, 활동을 통해 직접 관찰한 내용 및 느낀 점 등을 자유롭게 기록하였다. 초기에는 모든 참여자들의 활동일지 양식을 자유로운 연구노트 형식으로 구성하였으나, 실행 1개월 후 참여청소년들이 언어 문제로 기록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간략한 양식지를 요청하였다. 이에 참여청소년들의 활동일지는 일일 시간 테이블을 구성하여 시간에 따른 활동내용을 간략하게 기록하고, 그날의 활동 느낌을 자유롭게 기술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실천가와 연구자는 활동일지를 자유 양식으로 유지하되, 기록 내용을 상세히 남기는 것으로 협의하였다. 둘째, 실행과정 중 참여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참여청소년들의 활동일지가 간략화 됨에 따라 그들의 경험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실행과정에 대한 중간 점검 및 평가 차원에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인터뷰는 각 참여자당 평균 2회씩, 약 1시간 정도로 센터 상담실 등에서 진행되었다. 인터뷰 결과는 전사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셋째, 반복적 실행을 위해 각 실행 주기마다 중간 및 평가회의를 진행하였으며, 회의기록을 작성했다. 회의기록은 모든 참여자들이 공유하였고, 결과에 대한 합의를 거쳐 계획 수정에 활용되었다. 넷째, 참여자들을 알고 있는 센터 내 다른 업무 담당 실무자들과의 정보 공유, 연구 참여자들과의 일상적 대화 등을 통해 부가적인 정보를 제공받았다.

5. 연구의 엄격성

Herr와 Anderson(2005)은 실행연구의 5가지 타당성 기준을 제시하였다. 그들에 따르면, 실행연구는 결과(Outcome), 과정(Process), 민주적(Democratic), 촉매제적(Catalytic), 대화적(Dialogic) 타당성을 토대로 연구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를 적용하여 연구의 엄격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첫째, 결과의 타당성은 계획된 실행 행위가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 연구를 재구성하는 결과를 도출하도록 타당하게 구성되었는지를 말한다. 여기서 결과는 단순히 참여자의 문제 해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반성적인 실행 과정의 반복을 통해 문제와 실행의 틀을 연구의 측면에서 재구성한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실행과정을 기수별로 구분하여 반복하는 것으로 설계하였으며, 모든 연구 참여자가 지속적인 평가를 통해

실행 계획의 수정 및 재실행하는 틀을 따름으로써 실행연구의 특성과 역동성을 이끌어 내도록 하였다. 둘째, 과정 타당성은 일련의 반성적 사이클을 통해 문제와 실행의 재구성을 이끌어 가는 과정 자체와 그 안에서 참여자들이 함께 문제를 논의하고 관계의 질적 향상을 담보하는 것이다. 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모든 참여자들은 각자의 수동적인 역할⁹⁾에서 벗어나도록 주체적인 역할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협의하였다. 셋째, 민주적 타당성은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협력적으로 이끌어 내는 것이다. 우선 연구 참여자들의 의견이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고 다양한 관점이 자유롭게 표현되도록 의견 교환을 실시하였다. 또, 이해관계자는 연구 세팅 아래에 관련된 사람들(동료, 교육 강사, 자원봉사자, 주변 연구자 등)도 포함되는데, 실행 도중에 그들로부터 정보 수집 및 자문 등을 구해 연구의 조율 및 중립성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넷째, 촉매제적 타당성은 실행과정이 참여자들 모두에게 나선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 때 담보된다. 주로 프로그램 이용자들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는 연구들과 달리, 실행연구는 실천가 및 연구자 또한 참여자의 입장에서 스스로의 변화에 관심을 갖는다. 이를 위해 연구자와 실천가는 실행에 대한 관찰과 더불어 스스로의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그 내용을 활동일지에 포함시킨 뒤 공유하였다. 다섯째, 대화적 타당성은 동료 등 관련자들과의 비판적 대화를 통해 실행연구를 학술적 연구로서 검토 받는 것이다. 본 연구는 실천적·이론적 민감성 조율, 연구윤리 차원의 감시, 연구 자문 등을 위하여 관련 실천가 및 질적 연구자들을 동료지지집단으로 설정하였다. 그들로부터 연구주제 설정부터 실행, 결과 분석 등 본 연구에 대한 주기적인 피드백을 받았다.

6. 윤리적 문제

실행연구의 전 과정은 모든 참여자들에게 참여적 환경을 구성하기 때문에 윤리적인 부분의 고려가 요구된다. 본 연구는 윤리적 문제들을 방지·해소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진행하였다. 첫째, 모든 연구 참여자들에게 연구 주제와 목적, 방법, 결과물 등에 대한 사전 공유와 동의를 구하였으며, 동의서를 작성함으로써 명문화하였다. 둘째,

9) 실천가, 연구자, 이용자가 개별적으로 구분되어 이용자는 수혜자의 입장으로만, 연구자는 관찰·분석자로만, 실천가는 실무 실행자로만 역할과 기능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참여자는 누구라도 부정적인 피해가 발생할 경우 연구 수정 혹은 중단이 가능하며, 언제라도 참여중단 의사를 밝힐 수 있고 원하지 않을 경우 연구결과의 일부 혹은 전체의 비공개 요청 등을 할 수 있음을 동의서에 명시하고 상호 확인하였다. 셋째, 개인정보 보호 등 비밀보장에 대해 주지하였으며, 결과 기술을 위해 코드번호 및 이니셜 표기 등을 활용하였다. 넷째, 연구 계획 및 결과 등 일체의 내용은 실행연구가 수행된 기관으로부터 검토 및 승인을 받았다.

III. 연구결과

본 연구는 바리스타 인턴십 프로그램의 진행주기에 맞추어 실행과정을 반복하였다. 실행과정은 1기수 당 [프로그램 준비] - [인턴 참여자 준비훈련 기간] - [바리스타 인턴 활동] - [평가 및 재실행]으로 진행되었으며, 총 3기수를 반복실행 하였다. 전반적인 실행과정과 그 결과는 그림 2에 제시되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프로그램 초기세팅

1기 바리스타 인턴십 프로그램 활동 내용의 초기 구상은 활동 참여자들, 연구진, 실천가가 모두 함께 구성하는 것이 이상적일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활동 참여자들이 기관 내에서 가능한 활동, 자원 등을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는 실천가와 연구진이 기존 프로그램의 틀을 활용하여 내용을 구축하고 참여자들에게 확인 및 점검을 통해 활동 내용을 보완해가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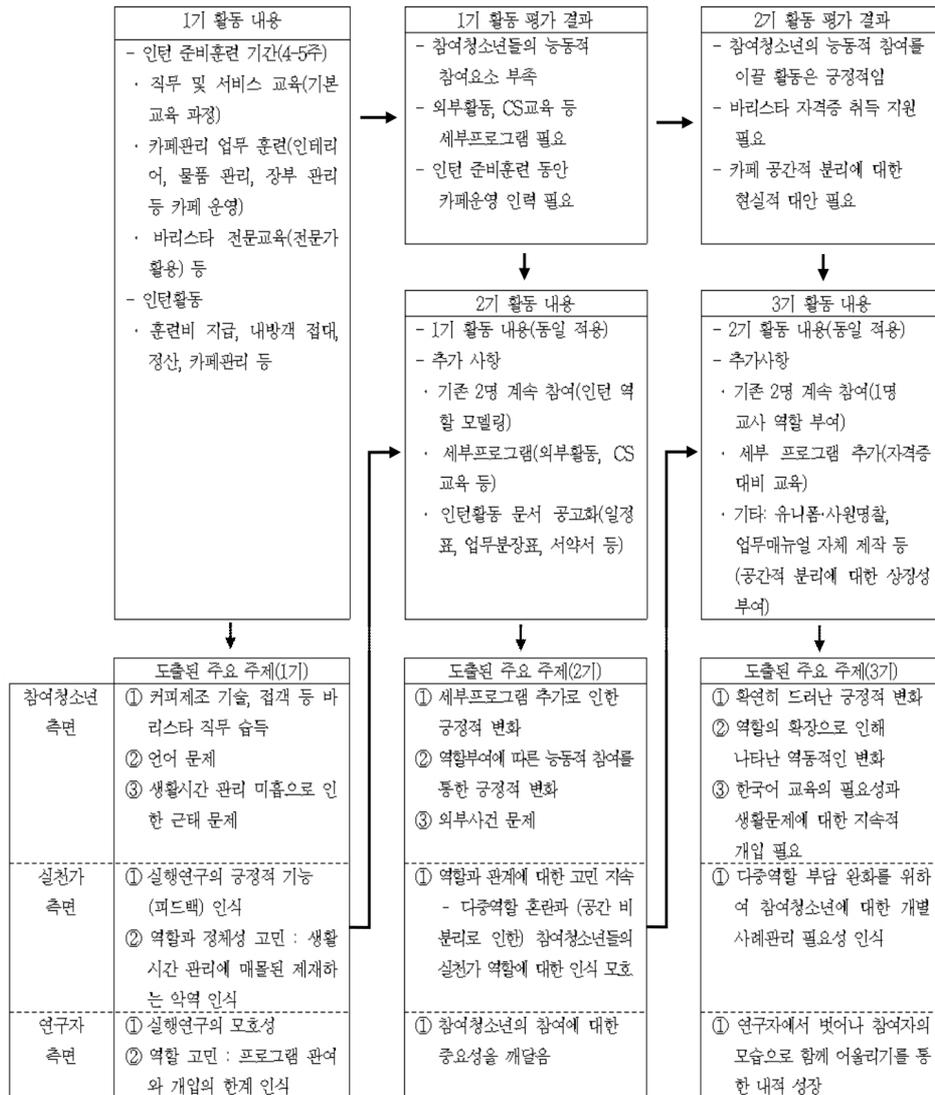


그림 2. 전반적 실행과정 및 도출된 주요주제

인턴십 프로그램의 주요 활동 내용은 두 단계로 구성되었는데, 참여자들은 우선 4-5주정도의 바리스타 인턴 준비훈련 기간을 가졌다. 이 기간 동안 참여자들은 직무 및 서비스 자체 교육, 카페관리 업무 습득(물품 및 장부 관리, 주방 등 공간관리 외),

전문가로부터 커피 등 음료제조 및 커피머신 기기 사용(바리스타 교육) 등의 교육·훈련을 받았다. 이러한 훈련을 마친 후, 참여자들은 다음 단계로 카페의 인턴으로 채용되어 1개월 동안 근무를 하였다. 인턴은 주 5일을 근무하며, 카페 영업개시부터 음료 제조 및 손님 응대, 정산 및 청소 등 카페 운영의 전반을 담당하는 것으로 구성되었다. 프로그램의 초기구성은 실행 및 평가를 통해 보완하였으며, 활동 내용은 그림 2에서 확인할 수 있다.

2. 1기 실행 과정을 통해 도출된 주요 주제

1) 참여청소년 측면

(1) 커피제조 기술,接客 등 바리스타 직무 습득

인턴 프로그램을 통한 참여자들의 긍정적 변화는 바리스타의 기본 업무라 할 수 있는 커피제조 기술과 행동태도 등의 직무를 습득한 것이다. 참여청소년들은 인턴 준비훈련과정에서 음료제조 기술 등을 배우는데 어려움을 표현하기도 했지만 진지하게 임했다. 참여자들이 준비훈련과정 을 거치고 인턴으로 정식근무를 시작할 무렵에는 인턴훈련과 업무를 진행하는데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었다.

- 참여자들은 입으로 칭얼대는 등 힘들어하는 내색을 비추긴 했지만, 말로만 그러는 것이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괜히 할 거면서 투덜대며 일하는 모습 같이 보였다. (연구자2 활동일지 중, 6월)
- 90%의 커피를 만들 줄 알았다. (참여자4 활동일지 중, 6월)
- 기뻐다, 못 봤던 거, 생각해 보지 못 했던 걸 알게 되었다. 그리고 참여자4와 같이 직접 커피를 만드는 법을 배워서 재미있었다. 오늘은 의미 있는 하루였다. 이제 커피를 조금 잘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참여자3 활동일지 중, 6월)

(2) 언어 문제

참여청소년들은 바리스타 직무의 습득과 향상이 이루어졌으나, 언어적인 부분에서 어려움이 나타났다. 우선, 참여자들은 한국어가 미흡하여 바리스타가 숙지해야 할 커피 원료, 추출원리 등 이론적인 부분의 이해에 어려움을 보였다. 이는 음료제조 방법을 배우거나 훈련 시에도 나타났으며, 이론적 교육뿐만 아니라 행동적인 기술을 훈련·적용하는데 미흡한 모습으로 두드러졌다. 예를 들면, 음료를 제조할 때 재료를 구분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 낮은 한국어 실력은 실천가가 동료 직원들과 참여청소년들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을 때, 그들이 바리스타 업무를 명확히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으로 나타났다.

- 이론적 강의 시, 참여자2, 3, 4는 잘 못 알아듣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참여자2가 가장 못 알아듣는 반응을 보였다. 참여자3은 이론적 교육 시, 거의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연구자2 활동일지 중, 5월)
- 팀장님과 (기관 내 타부서인) 선생님과 (참여자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두 분 모두 부정적인 의견이었다. 한국말 실력이 너무 부족하며 업무에 대한 인식도 충분하지 않아서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걱정스럽다는 의견을 주셨다. (실천가 활동일지 중, 6월)
- 평소 시럽은 커피 주방 공간에 일정한 배열로 놓여있다. 그런데 오늘은 그 배열이 섞여 있어서 참여자4는 구별하지 못하였다. (연구자2 활동일지 중, 7월)

언어의 문제는 참여청소년들이 손님들을 접대할 때도 영향을 미쳤다. 참여자들은 실제 손님들과 대화를 할 때 긴장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은 참여자들의 변화에 대한 초기단계로 비춰지기도 하였다. 참여자들은 한국 사람들과 대화하고 상호작용하는 것을 인턴 활동을 통해 얻고 싶은 것으로 지칭하였었는데, 실천가는 참여청소년들의 긴장하는 모습을 변화하는 단계로 평가하기도 하였다.

- 참여자3이 주문을 받았는데, 많이 긴장해 있는 것 같았다. (기관 내 타부서인) 선생님의 말로는 일반 사람들이 와서 주문을 하거나 말을 걸면 생각보다 아이들이

많이 긴장한다 했다. 아이들이 이 활동을 통해서 가장 얻고 싶은 것이 한국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이었는데, 실제 사람들이 말을 걸면 아이들이 당황하는 단계로 보였다. (연구자1 활동일지 중, 6월)

한편, 참여청소년들 중 일부는 한국에 오기 전, 적절한 양육자의 보호가 부재했던 상황 아래에서 학업에 흥미를 잃거나 중단되었던 경험이 있었다. 그로 인해 출신국의 언어로 대화는 가능하나 읽거나 쓰기에 한계가 있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들은 한국어 능력이 낮은 것뿐만 아니라 모국어인 중국어의 읽기와 쓰기 능력이 부족한 특성을 보이기도 했다.

본 연구는 참여자의 한국어 능력을 고려하여 이해하기 어려운 한국어로 된 일지 등을 중국어로 번역하여, 한국어와 중국어 둘 다의 버전으로 제공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기와 같이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있어 일지 작성 및 관련 활동에 대한 설명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했다.

- 참여자4에게 먼저 (중국어)로 번역해간 활동일지를 읽어보라고 했다. 잘 읽다가 중간에 한자를 까먹었으며, 중국에서 중2학년 중퇴하고 책을 거의 읽은 적이 없어서 한자를 잘 못 쓴다고 이야기 했다. (연구자2 활동일지 중, 6월)
- 참여자4는 일지를 한국어로 적어놓았는데, 많이 적지 않아 물어보니 중국어를 까먹었다고 표현했다. (연구자1 활동일지 중, 6월)

(3) 생활시간 관리 미흡으로 인한 근태 문제

참여자들이 인턴 활동을 수행하면서 떠오른 어려움은 잦은 지각으로 인한 근태 문제였다. 참여청소년들은 대부분 본국에서부터 친부모 등의 양육체계가 부재하였으며, 한국 입국 이후에도 복잡한 가족구조로 인해 부모와 거리감이 있는 경우가 많아¹⁰⁾ 적절한 양육을 통해 규칙적인 생활패턴을 형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참여자들은 계약된 정규 인턴활동 기간 동안 규칙적인 정시 출퇴근을 기본적으로 지켜야 함에도

10) 이는 참여자들과 활동을 같이하며, 그들로부터 과거경험을 자연스럽게 전해 듣거나 인터뷰 등을 통해 도출된 사항이다. 참여자들은 밤새 TV 시청 또는 게임을 하거나 PC방에서 종일 게임을 하는 등 생활패턴에 무질서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불구하고 빈번히 지각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그들 스스로도 아침에 규칙적으로 일어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이로 인해 실천가는 정시 출퇴근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교육해야만 했으며, 그들의 근태관리를 위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여할 수밖에 없었다.

- 너무 너무 피곤해요. (중략) 그런데 즐겼다. 매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된다... (참여자3 활동일지 중, 7월)
- 참여자4에게 지각한 이유를 물어보니 어제 밤새 게임을 했다고 한다. 가족들이 밤새 게임 하는 것에 뭐라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고 놔둔다고 한다. (연구자2 활동일지 중, 7월)

2) 실천가 측면

(1) 실행연구의 긍정적 기능(피드백) 인식

실천가가 실행연구에 참여함으로써 느낀 변화 중 하나는 실행 연구를 시작하면서 기관 내 존재했던 기존의 슈퍼비전 체계 외에 함께 의견을 나눌 피드백 체계가 생겼다는 것이다. 기존의 슈퍼비전 체계는 직무의 위계 상 결재의 성격을 포함한 수직적 피드백인 반면, 실행연구로 인한 프로그램에 대한 논의는 수평적 피드백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실천가는 긍정적으로 느꼈다. 실천가는 프로그램을 구성해감에 있어서 본인의 권한 및 역할에 대한 혼동을 종종 느꼈는데, 실행연구에 참여하면서 그러한 혼동에 대하여 수평적으로 의견을 함께 나눌 수 있는 피드백을 기대하였다. 그리고 실행연구 참여자들로부터 업무, 프로그램 사업 틀, 역할 혼란 등에 대한 피드백을 확인하는 경험을 하였다.

- 실천가에게 이 연구를 참여함으로써 무엇을 기대하고 얻을 것 같은가라고 질문하니, '일에 대해 이야기 할 수 있는 게 좋으며, 무엇보다도 동료로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것이 좋아요'라고 답했다. (연구자2 활동일지 중, 4월)
- 실무자로서 역할은 여전히 모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연구진들이 실무자의 역할

을 봐 주었으면 해요 ..(중략).. 지금은 업무 확인도 되고, 피드백도 되는 것 같아 좋아요. 사업들을 만들어 나가는 느낌도 들어요. (실천가 평가회의 중, 8월)

(2) 실천가의 역할과 정체성 고민 : 생활시간 관리에 매몰된 제재하는 악역 인식

1기 실행과정 동안 실천가는 프로그램에서의 역할에 대한 고민을 토로하였다. 바리스타 인턴십 프로그램의 주된 목표는 참여청소년들에게 전문직업인으로서 바리스타 직무를 교육·훈련하고, 실제 업무 공간과 같은 카페에서 바리스타 근무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이후 진로에 대비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실천가는 전반적인 카페 관리·운영 및 프로그램 행정업무, 참여청소년들을 인턴으로 교육·훈련하는 것 등과 관련된 역할을 맡고 있다. 그러나 전술하였듯이, 참여청소년들은 한국 입국 전부터 현재 까지 적절한 양육체계가 부재한 상황에서 밤새 게임을 하거나 또래친구들끼리 어울리는 등 불규칙적인 생활로 시간 관리에 부적절한 패턴을 보였다. 이는 인턴 근무에 있어 잦은 지각, 무단결근 등 근태 불량으로 이어졌으며, 실천가는 어느 순간부터 참여 청소년들이 생활시간을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지도·지시하는 역할에 상당부분 몰두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실천가는 프로그램 본연의 목적을 위한 활동을 수행하기보다 참여자들의 생활시간 관리에 매몰되어 있는 자신을 발견하였으며, 그로인한 실천가의 역할과 정체성을 고민하기에 이르렀다.

- 실천가는 근태관리를 하는 것은 맞으나 실질적으로 그들의 생활까지 관리를 해야 하는가와 인턴 활동을 어디까지 구체화해야 할가에 대한 딜레마가 생긴다고 하였다. 사업의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천가는 지난 한 달 동안 아이들의 생활 태도만 돌보고 지도 한 것 같다고 했다. (연구자2 활동일지 중, 7월)
- 담당자로서 정체성 고민이 있었어요. 혼란이 오기도. 어디까지 여기의 틀을 잡아야 하나 고민이 생겼어요. 직업 훈련 외에 생활태도가 안 잡혀서 아무것도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근태 생활지도의 수준은 어느 선까지 관리를 해야 되냐면 자는 시간 밥 먹는 거 왜냐하면 그게 안 되고 있다니까요. (실천가 평가회의 중, 7월)

참여자들의 근태 관리에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소요해야했

던 실천가는 스스로 참여자들을 ‘제재하는 악역’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 같다고 표현하기도 했다.

- *지금 악역은 저 혼자 하고 있는 거 같아요 악역이라기보다는 애들한테 제재하고 하는 거는 저밖에 없는 거예요. (중략)... 뭐 그런 얘기를 하거나 그런 태도를 유지하거나 그런 표현을 하는 거는 저밖에 없는 거죠. (실천가 평가회의 중, 7월)*

참여자들의 생활시간 관리를 위해서 많은 에너지를 투입해야 했고, 스스로를 프로그램 내 제재자로 토로하던 실천가는 쉽게 변화하지 않는 참여자들로 인해 점차 소진의 감정까지 느끼고 있었다. 생활시간 관리를 위해 투입하는 시간이 증가하고 반복되자 실천가는 기계적으로 참여자들을 대하고 있다고 느끼며 실천가로서 역할과 정체성에 대한 고민과 반성의 모습을 취하기도 했다.

- *고민이 되는 게 저도 요즘에는 아이들을 기계적으로 계속 대하는 부분이 있어요 제 역할 중에 제재는 여러 일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소진이 되고 가치관에 대한 생각.. 이 친구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만나야 될까 하는 생각이 조금도 없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피로움도 있죠. (실천가 평가회의 중, 7월)*
- *조금 여유가 생길 때 생각을 하면, 그때 내가 아이들한테 화를 내고 있구나.. 아무런 가치관 없이 강요를 하고 있구나.. 우리가 뭐가 비었구나가 그때 보이는 거예요 (실천가 평가회의 중, 7월)*

3) 연구자 측면

(1) 실행연구의 모호성

1기 실행과정에서 연구자들은 공통적으로 연구로서 실행과정에 대한 모호성을 이야기했다. 실행연구를 시작하기 전, 기존문헌 등을 검토하였을 때, 이론적으로 구상했던 연구의 모습과 실제 실행과정에서 느끼는 감정에는 괴리가 있었다. 이론적으로 참여 실행연구는 모든 참여자의 참여가 강조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실천현장에서는 기관, 프로그램, 실천가, 클라이언트의 관계가 이미 어느 정도는 구성된 세팅으로 부

여된 권한과 참여의 강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특히, 참여청소년들의 경우는 기관 프로그램의 이용자라는 느낌이 강하여, 능동적인 참여보다 준비된 세팅을 단순히 이용한다는 평이 제기되었다.

또, 실천가, 연구자들, 참여청소년들이 각각 지닌 실행의 목표, 역할 배분, 프로그램 성과에 대한 관점이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하였으며, 연구의 실행과 평가에 대한 구체화의 어려움을 토론했다.

- 1달 정도가 흘렀을 때는 연구에서 '조금 안개가 걷힌' 느낌이 들었다. 책이나 학술지를 보고나서 실행연구의 이미지가 조금씩 잡혀간다고 생각했다. 처음에 참여자들과 관계를 형성하고 실천가와 주제를 잡아갈 때는 어쩐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구체적인 활동거리와 일정을 정하자 다시 모호해지기 시작했다.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본 연구의 목표와 역할 배분, 참여자의 역량강화를 어떻게 보여줄 것인지에 대한 견해가 조금 달랐다. (연구자1 활동일지 중, 6월)
- 이 세팅이 참여실행 연구가 맞을까라는 고민을 했다. 참여자들의 실행이 일어나는 것인가라는 고민도 되었다. 또, 실행연구와 참여실행연구를 구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되었다. (연구자2 활동일지 중, 8월)

(2) 연구자의 역할 고민 : 프로그램 관여와 개입의 한계 인식

연구로서 실행과정에 대한 모호성과 더불어, 연구자들은 1기 실행과정동안 연구자이자 참여자로서 역할에 대한 고민을 지속했다. 연구가 실행되는 장소인 기관의 입장에서 연구자들은 외부인이기 때문에 협조를 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관 사업에 대한 연구자들의 관여와 개입에 한계점이 있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기관은 공식적 행정절차가 있으며, 조직방침과 규정, 문화가 존재하기 때문에 실행연구의 세팅을 연구자들의 입장에서만 이상적으로 구성할 순 없었기 때문이다.

또, 연구자들은 반실천가이자 참여자로서 실행에 참여하였는데, 그 경계가 미묘하여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기도 하였다. 참여자로서 프로그램 변화에 대한 계획에 동참하기보다는 활동 참여와 관찰자로서 역할에 집중하고 있었음을 깨달았다.

- 연구자의 입장에서, 센터 사업에 대해서 개입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고, 연구자가 앞서서 무언가를 추진하는 것이 힘들다고 생각되는데, 이것이 현장 사업의 특징이라고 생각해야 하나하고 고민이 되었다. (연구자1 활동일지 중, 6월)
- 연구자1과 지금까지 명확히 어떠한 활동을 했는지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나누었다. 연구진으로서 정체성 혼란이 된다고 하였으며, 연구로서 잘 해나가고 있는지 의구심이 많이 제기된다고 했다. 프로그램의 틀 뿐 아니라 연구진의 역할 정립이 필요할 것 같다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연구자2 활동일지 중, 6월)

이에 연구 개시 전, 역할 고민이 미비하였으며, 프로그램의 틀에 대한 개입과 더불어 연구진으로서 역할 정립이 요구됨을 인지하였다. 이를 통해 연구자의 정체성을 다시 확인하고 그에 맞춘 역할의 세분화가 필요함을 깨닫게 되었으며,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아이디어 개선 및 공유 측면의 참여가 요구됨을 인지하게 되었다.

- 역할분업 회의 결과, 연구자는 준실천가이며 연구자로 참여하는 것이 참여실행연구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실천가는 연구자들이 준실천가로 학생들과 같은 참여자이며 연구자로서 활동해 주기를 희망했다. 더불어 참여청소년들에게 한국 성인들의 모델 역할도 기대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역할을 세분화하여 정해보기로 했다. (연구자2 활동일지 중, 5월)
- 프로그램 시스템에 대한 관여 정도를 논의했다. 기관행정 시스템에 큰 틀이 아닌 작은 틀 내에서 의견을 개진하는 수준으로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었다. (연구자2 활동일지 중, 5월)

3. 2기 실행 과정을 통해 도출된 주요 주제

1) 프로그램 측면의 변화¹¹⁾

2기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은 1기 프로그램을 토대로 세부 내용을 확장·보완하여 결정되었다. 모든 참여자들이 1기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결과 크게 세 가지의 안건이 도출되었다. 첫째, 참여청소년들의 능동적 참여를 이끌 요소가 프로그램에 부족했다. 참여청소년들은 고정화된 프로그램 틀 속에서 카페운영 및 바리스타 역할을 수동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둘째, 프로그램 세부 내용을 좀 더 다채롭게 추가할 필요성이 도출되었다. 참여자들은 카페 홍보 겸 외부활동 등을 통해 한국 사람들과의 교류를 희망하였다. 또, 고객서비스(Customer Satisfaction: CS) 교육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기존 프로그램 내에서 바리스타 전문기술 훈련은 가능하지만 근무 태도, 고객응대기법, 서비스 화법 등 행동적 서비스 기술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평가되었다. 셋째, 인턴 근무 전 준비훈련 과정동안 카페를 운영관리 할 인력이 필요함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인력은 2기 참여청소년들이 인턴 준비훈련 과정 동안 역할 모델링이 가능한 인원이 적절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를 반영하여 2기 프로그램에서 추가·보완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턴십 프로그램의 운영은 인턴 준비훈련 기간(1단계)과 인턴 근무(2단계)로 진행되었으며, 직무 및 카페운영 등의 기본적 내용은 1기 프로그램과 유사하게 구성하였다. 둘째, 2기 참여청소년들의 인턴 준비훈련 기간 동안 카페를 운영관리하며, 그들의 인턴역할 모델이 되어줄 수 있도록 1기 참여청소년 중 2명이 계속 참여하였다. 1명은 카페 내 매니저의 역할을 부여하고, 또 다른 1명은 인턴근무를 연장하여 참여하였다. 셋째, 외부활동(야외홍보 및 판매활동)과 CS 교육 등 세부 프로그램을 추가하였다. 외부활동은 지역사회 내 공동장터에 카페 이름으로 참여하여 부스를 세우고 홍보 및 판매활동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 때, 참여청소년들의 참여를 이끌기 위하여 외부활동 등에 대한 세부기획과 역할 등을 점진적으로 부여하는 것을 중점으로 삼았다. CS 교육은 전

11) 본 연구는 참여청소년, 실천가, 연구자 측면 외에 각 기수별 프로그램 평가 및 변화과정을 분석하였으나 원고 분량의 한계로 인하여 프로그램 측면의 변화는 변경 점을 중심으로 요약하여 수록하였음을 밝힌다.

문 강사를 초빙하여 집합교육·훈련 및 피드백으로 진행되었다. 넷째, 참여자들이 인턴활동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출결 상황 등을 인지할 수 있도록, 업무분장표, 일정표(주 단위), 서약서 내 활동수칙 명시와 동의 등 인턴활동 내용과 규칙 등의 문서화를 좀 더 공고히 하였다.

2) 참여청소년 측면

(1) 세부프로그램 추가로 인한 긍정적 변화

2기 실행과정 동안 참여청소년들은 1기와 마찬가지로 바리스타 기본업무 파악, 카페 운영 등의 기술을 배웠다. 그리고 2기에서 추가된 활동들로 인해 참여청소년들에게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먼저, 전문 CS강사를 초빙하여 참여청소년들에게 기본적 직장 예절과 대인 간 고객 대응, 서비스 마인드 등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했다. 보통 CS 교육은 관련 교육학원에서 약 20명 규모의 대상에게 특정직무와 관련되지 않은 일반적인 서비스 교육(강의식)으로 구성된다. 그에 비해 본 프로그램은 구체적인 교육 내용을 바리스타 직무로 구성하여 서비스 이론교육과 실습 과정을 진행했는데 그것이 효과적이었다고 판단된다.

- 감사하게도 대상자에 대한 이해나 기관에 대한 이해가 있는 분이 선생님이 오셔서 CS수업을 했다. 2회기관에 아이들이 변하지는 않을 거라고 걱정하셨다. 그래도 안하는 것 보다 아이들이 경험하고 배운다는 것만으로도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한다. (실천가 활동일지 중, 8월)
- 참여자1은 이전에 자신이 친절하게 이야기해도 손님들이 무시하는 경우가 있을 때면 화가 나고 기분이 나빴다고 했다. 역할 연습을 할 때는 참여자1도 미소도 띄우고 서비스형 접대멘트도 잘 하는 모습을 보였다. (연구자2 활동일지 중, 8월)

외부활동은 인근 지역사회에서 정기적으로 열리는 장터에 참여하여, 카페음료 및 음식 판매, 홍보 등을 하는 행사부스를 운영하는 것으로 진행되었다. 그동안 카페 내부에서 내방객들을 대상으로 한정적인 활동을 수행했던 참여청소년들은 외부장터 활동을 준비·진행하면서 일종의 재미를 추구할 수 있었고, 이것이 인턴활동에 몰입할

수 있는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 장터준비를 하는데 참여자1이 전에 없이 적극적으로 임하고 즐거워보였다. 물어 보니, 엄청 기대되고 즐겁다고 이야기했다. 이벤트를 담당한 참여자5는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잘 이야기했다. 참여자6, 7은 재료준비 역할에 성실히 임했고, 참여자1은 즐겁다고 하면서 정말 열심히 했다. 내가 굳이 끼어들어서 뭔가를 하는 게 방해가 될 정도로 엄청 신나보였다. 나도 신나고 즐거웠다. 아이들도 재미있었다고 하고, 참여자1은 특히나 너무 좋았고 즐거웠다고, 답답했던 마음이 뽕 뚫리는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 정말 우물안 개구리처럼 우리끼리만 북다북다 했던 것 같다. 다른 사람들과 다양하게 함께 어울리면서 할 수 있는 활동들을 고민하게 되었다 (실천가 활동일지 중, 8월)

(2) 역할부여에 따른 능동적 참여를 통한 긍정적 변화

외부활동(장터참여)은 정례화 된 카페 업무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유동적인 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참여청소년들을 중심으로 장터활동을 기획·준비·운영 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역할과 권한을 점진적으로 부여하였다. 이번 기수는 총 2번의 외부장터 활동을 하였는데, 참여청소년들은 장터 부스의 기획(메뉴 및 이벤트, 홍보방법 등)과 운영에 자주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 장터활동의 세부내용에 대한 아이디어를 도출하였으며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모습을 보였다. 실천가는 예전에 수동적인 경향이 강했던 참여자들이 능동적으로 활동에 참여한다는 점을 들며, 그들의 긍정적 인 변화를 인식하고 스스로 놀랍다는 표현을 내보였다.

- 큰 테두리만 정해주고 훈련생들에게 장터준비를 맡겼다.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직접 회의를 하고 정리해서 결과물을 낸다는 것 자체로 의미를 두었다. 회의 시간도 지켰고 결과물도 바로 보내주었다. 영성하지만 처음과 비교했을 때 엄청난 발전이다. 처음이 뭐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떤 정리나 과제를 주면 제대로 된 구조화도 못했었다. 아이들이 에너지를 가지고 움직이고 계획을 하는 게 신기하다. 아니, 그런 변화가 신기하다. 사람은 정말 변하는구나. 질적으로 변하는 순

간이 있다. 지금 그런 시기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실천가 활동일지 중, 9월)
- (준비모습을 보며) 뭐라고 해야 할까 '무언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팀 내 응집력도 생긴 것 같다. (연구자1 활동일지 중, 9월)

(3) 외부사건 문제

참여청소년들에게 발생하는 외부사건들은 2기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그들은 보호 체계의 부재, 법적으로 성년과 청소년의 중간자적인 위치 등으로 인하여 독특한 환경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외부사건의 발생은 인턴 프로그램 참여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참여청소년들은 국내체류 자격과 관련된 비자 연장, 폭력 및 비행행동 등 다양한 외부사건들에 연관되어 있었는데, 이를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기보다는 인턴 참여과정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일례로, 한 참여청소년은 폭행사건에 연루되어 프로그램 참여에 어려움을 보이기도 했다.

- 참여자1이 연락 없이 출근하지 않았는데 하루 종일 연락이 되지 않았다. 며칠 뒤 출근해서 결근 사유를 물으니, 술자리에서 옆 사람들과 시비가 붙어 집단 싸움을 하게 되었고, 그 일로 핸드폰이 파손되고 경찰서에 다녀왔다고 한다.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폭행사건 연루 등)에 억울하고 화가 나 있었고 답답한 모습이었다. (실천가 활동일지 중, 8월)

3) 실천가 측면: 다중역할 혼란과 공간 비분리로 인한 참여청소년들의 실천가 역할에 대한 인식 모호

실천가는 1기 실행과정에 이어 역할에 대한 고민을 지속했다. 1기 실행과정에서 도출되었던 참여청소년들의 출결관리 문제는 정식인턴 근무 전 단계인 준비훈련 과정에서 집중하여 교육·훈련하는 것으로써,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이 사실이었다. 그러나 실천가는 여전히 다중적인 역할로 참여청소년들과 관계를 맺고 있었으며, 그 안에서 혼란을 느꼈다. 실천가는 참여청소년들과 같은 공간 내에서 프로그램 진행자, 교육자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동시에 프로그램 내·외적 기관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상황

이었다. 여기에 참여청소년들의 부적절한 근무 태도에 대한 반복적인 지적과 지시적인 역할뿐만 아니라 인턴 활동에 지장을 주는 외부사건에 대한 개입 등 복합적인 역할과 과업이 주어졌다.

그 안에서 실천가는 카페 공간이 공간적으로 분리되지 않음이 참여청소년과의 관계와 역할에 혼동을 주는 지점이라 지적하였다. 참여청소년들이 기존에 기관 서비스를 받던 공간과 실천가의 행정업무 수행 장소, 그리고 카페 공간이 한 공간에 몰려있기 때문에 참여청소년들은 공간에 대한 인식이 미약하고¹²⁾ 카페 인턴으로서 자각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 참여청소년들이 카페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면서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실천가와 함께 같은 공간에 상주하다보니, 실천가를 교육자로 인식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하였다. 이것은 실천가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지속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 실무자는 자신의 역할 설정에서 계속 고민이 되는 상황인 것 같다. 아이들과 구조적으로 분리되지 않고 계속 같이 있는 상황이라 그런 것 같다고 했다. (연구자 1 활동일지 중, 8월)
- 저는 친구들과하고 이 공간에서 하루 종일 봐요. 차라리 안 보면. 프로그램만 생각해서 단절되어 있으면 더 집중해서 지도하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럴 환경이 아니구나.. 요즘에 계속 생각해요 (실천가 평가회의 중, 7월)
- 아이들을 지도하고 훈련도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로 해야 하는지도 가늠이 안 될 때가 있어서 눈먼 장님이 코끼리 더듬더듬 하는 기분일 때가 있다. (실천가 활동일지 중, 9월)

4) 연구자 측면 : 참여청소년의 참여에 대한 중요성을 깨달음

연구자들은 2기에 도입된 야외활동(장터참여 등)을 준비·실행하는 과정에서 참여 청소년들의 능동적 참여가 프로그램이 야기하는 긍정적 효과의 원천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연구자들은 그동안 학술적 혹은 실천적 경험을 통해 중도입국이라

12) 물리적인 공간인 상담실, 교육장, 카페 공간 등이 하나의 층에 연결되어 있다. 지속적인 기관 서비스를 이용해온 참여청소년들의 입장에서는 카페 공간이 기존에 서비스를 받던 공간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인식이 있었다.

는 이주배경을 지닌 참여청소년들을 취약한 존재이자 암묵적으로 피동적인 존재로서 바라보았음을 성찰하는 기회가 되었다. 이러한 생각은 2회기의 야외활동 동안 참여청소년들에게 장터 준비 및 계획에 더 많은 역할과 권한을 점진적으로 부여함으로써 더 확고해질 수 있었다. 야외활동의 회기가 더해질 때마다 점진적으로 참여청소년들이 메뉴 선정, 부스 꾸미기 아이디어 도출, 재료준비, 기획회의 등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스스로의 장점과 자원을 활용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참여와 강점을 이끌어내는 것이 프로그램의 성과를 발생시키기에 효과적임을 확인하였다.

- 대상자 이해도가 낮았던 것 같다. 단순히, 학술로만 대상자를 바라보지는 않았던가에 대해 느꼈다. 예전의 청소년과의 경험, 다문화 여성 성인하고 실무경험을 통한 인식으로 참여자들을 본 건 아니었을까? (연구자1 활동일지 중, 8월)
- 어쩌면 참여청소년들이 더 잘 파악하고 있었고, 그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도 실무자 혹은 본 연구진이 의구심을 가지고 바라봤던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오히려 참여자들의 능력을 우리가 너무 낮게 보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연구자2 활동일지 중, 9월)
- 준비하는 것에 대해 참여자3과 6에게 물어봤는데, 안 힘들었다고 했다. 넌비는 참여자1이 준비해왔다고 하며, 재료는 참여자7의 어머니가 제공해 주었다고 한다. 여기서 참여자들의 강점이나 자원을 활용하면 앞으로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연구자2 활동일지 중, 9월)

4. 3기 실행 과정을 통해 도출된 주요 주제

1) 프로그램 측면의 변화

3기 프로그램은 2기 실행과정에서 도출된 내용과 평가를 토대로 세부 내용을 확장·보완하였다. 프로그램 측면의 2기 평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참여청소년들에게 역할을 부여하고 능동적 참여를 이끌 활동(외부활동 등)을 도입했던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둘째, 프로그램 세부 내용의 확장으로 바리스타 자격증 취득을 지원할 필요성이 도출되었다. 2기 실행 과정 중 참여청소년들은 직업 목표로

서 바리스타를 확고히 인식하게 되었으며,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을 활동목표의 하나로 표출하였다. 셋째, 카페의 공간적 분리에 대한 대안을 모색했다. 카페 공간이 기존에 참여청소년들이 이용하던 상담실, 교육장과는 별개의 장소이며, 그 경계 안에서 인턴으로서 적절한 근무 태도를 지녀야 함을 상기시켜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카페 공간을 물리적으로 분리할 수 없기 때문에 카페 공간에 대한 경계선을 만드는 것에 대해 일종의 상징성을 부여하는 방법을 논의하였다.

이를 통해 3기 프로그램에서 변경된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3기 실행과정은 참여 청소년들의 참여와 능동성을 이끌어 내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3기 신규 참여 청소년들의 인턴 준비훈련 기간 동안 카페의 운영관리를 위해 2기 참여자 중 2명이 계속 참여하였으며, 그 중 1명이 매니저 및 바리스타 기술훈련의 교사의 역할로 참여하였다. 둘째, 바리스타 자격증 대비 교육을 공식화하였다. 이는 바리스타 이론/실습 시험과 관련하여, 전문 바리스타의 도움을 얻어 이론 학습과 실전 시험 연습 등이었다. 셋째, 공간의 경계를 상징적으로 부여하기 위하여, 인턴들의 유니폼과 스텝 사원 명찰을 구비하였다. 유니폼 등은 소속감과 역할 및 서비스에 대한 책임감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고려된 것이다. 넷째, 업무매뉴얼을 자체 제작하여 발간하였다.

2) 참여청소년 측면

(1) 확연히 드러난 긍정적 변화

이전에 비하여 3기 실행과정 동안 참여청소년들의 근무태도, 직업기술 습득 등에 긍정적인 변화가 확연히 드러났다. 실친가, 연구진이 보기에 참여청소년이 스스로 느끼기에도 변화는 확연했다. 한 참여청소년은 ‘집에 있으면 죽은 것 같다’라는 표현을 하며 3기 활동에 매진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으며, 실친가는 참여청소년들의 긍정적 변화에 놀랍다는 감상을 남기기도 했다. 특히, 3기에 이르기까지 반복적으로 참여한 청소년은 근무태도, 역할 수행, 카페관리 능력에 있어서 상당한 발전을 이루었다고 평가되었다.

- 참여자8이 센터에 오는 이유는 집에 있으면 “죽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연구자1 활동일지 중, 10월)

- 요즘 참여자1을 보면 감사한 기분이 든다. 힘든 시간을 지나 사람이 달라지는 순간들을 보고 있다. 분명하게 참여자1은 지금 이 공간과 일에 있어서 중요한 사람이자 꼭 필요한 사람이다. (실천가 활동일지 중, 10월)
- 참여자1의 변화가 많은 것 같아요. 달라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카페 관리하던 지, 다른 아이들을 지도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해요. (실천가 평가회의 중, 11월)
- (다른 청소년들에게) 카페를 내꺼라 생각하면 더러운 게 보여. 내꺼 아니라 생각하면 안 보여. 그러니 내꺼라 생각하고 열심히 매진해야 돼... 금요일에 카페 식기에 약을 뿌리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잊지 말아.. (참여자1 평가회의 중, 11월)

참여청소년들의 긍정적 변화는 과정적인 변화로서 뚜렷한 프로그램의 성과로 제시하는 것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른다. 그러나 바리스타 자격증 취득을 위한 이론교육 후 2명이 필기시험에 합격한 점은 뚜렷한 성과로 볼 수 있다. 이는 참여청소년들의 한국어 실력과 필기시험의 난이도를 감안했을 때, 팔목할 만한 성과로 평가¹³⁾될 수 있을 것이다.

- 참여자1은 지난 번 바리스타 필기시험에 합격했다. 매우 기뻐하는 모습을 보이며, 활짝 웃으며, '왠지 붙을 거 같았어요.'라고 하며 자신도 있었다고 했다. 이후, 스스로 재고정리를 하는 모습을 보였다. 실무자에 따르면, 최근에 주도적으로 카페 일을 알아서 한다고 한다. (연구자2 활동일지 중, 10월)

(2) 역할의 확장으로 인해 나타난 역동적인 변화

참여청소년들의 역할이 확장되면서 그들 내면과 태도 등에 역동적인 변화가 일어남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참여청소년의 역할이 단순 카페관리 및 인턴 업무에서 매니저, 교사, 외부활동 기획 등으로 확장되고 난 뒤, 주도적으로 활동하는 모습이 다수 관찰되었다. 더불어 유니폼과 사원명찰 도입은 카페라는 공간적 경계 설정과 서비스

13) 안타깝게도 본 실행과정 중에는 최종적으로 실기시험까지 합격자를 배출하지는 못하였다. 다만, 연구가 종료된 뒤, 바리스타 자격증을 다수 합격하였고, 이후에 바리스타로 취업하여 근로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을 수 있었다.

에 대한 책임성을 키우는데 일조하였다고 볼 수 있다.

- 지난 주 야외시장에 나가는 것과 관련하여 회의를 진행했다. 실천가에 따르면, 참여자1이 처음엔 긴장했지만 인상적으로 아이들을 리드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 또, 참여자7이 칠판에 회의 내용을 기록하였으며, 이미 참여자1이 해당 내용을 워드로 기록하고 있었다. 실무자가 힘든 것은 없었냐고 물었을 때, 참여자1은 '재밌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주도적으로 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다. (회의록 중 10월)
- 물건이 들어온 것이 있을 때, 알아서 물품의 사진을 찍어 놓는 모습을 보이는가 하면, 냉장고, 기자재 등 선반 정리도 스스로 알아서 했다. 9월까지의 물품 리스트를 만들라고 해도 많이 능력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지금은 주도적으로 스스로 한다는 점에서 많은 발전이 있었던 같다. (연구자2 활동일지 중, 10월)

(3) 한국어 교육의 필요성과 생활문제에 대한 지속적 개입 필요

3기의 실행과정을 통해 참여자들에게 일어난 긍정적 변화는 상대적으로 이전 기수에 비해 많았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한국어가 미숙한 그들에게 언어는 지속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었으며, 향후 장애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었다. 이에 인턴 활동의 전 과정을 막론하고 한국어 교육을 병행 할 필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 센터 물품 정리하는 것을 보았다. 이때 참여자7이 물품 이름과 개수를 적으면서 한글을 물어보았는데 아이들이 한국어 실력이 나중엔 일을 할 때 문제가 될 것이라는 판단이 들었다. 인턴 활동이 끝난 후에도 계속 한국어 공부 등을 할 수 있는 체계가 만들어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연구자1 활동일지 중, 10월)

한편, 참여청소년들의 일탈행동, 가족관계 문제 등 외부사건들은 여전히 생활문제로 작용했고, 지속적으로 인턴 활동에 큰 장애물로 나타났다. 3기의 실행과정에서는 참여청소년이 근무 중 전자담배를 흡연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 바리스타 필기시험 전날 참여청소년들끼리의 과도한 음주로 시험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러한 부분은 실천가에게 인턴 프로그램 내에서 참여청소년들에 대한 개입의

범위 등과 관련하여 여전한 혼란을 야기할 수밖에 없었다.

- 지난 주 목요일 참여자3, 7이 센터 내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다 걸렸다고 한다. 또, 지난 수요일에 참여자6이 선생님들에게 매우 짜증을 많이 내고 소리로 질렸다고 한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당황하고 놀랐다고 했다. (연구자2 활동일지 중, 11월)
- 담당자가 인턴 활동을 위해 신경 써야 하는 것이 생활 패턴, 개인적인 상황(사고 친 것)으로 인해 발생하는 일들에도 개입을 해줘야 하는 상황이 도래했다. (연구자1 활동일지 중, 10월)

3) 실천가 측면: 다중역할 부담 완화를 위하여 참여청소년에 대한 개별 사례관리 필요성 인식

실천가는 인턴관리를 포함한 카페업무 지도, 기관 내 행정업무, 참여청소년들에 대한 개입(개별적 상황, 외부사건 및 생활관리 등) 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역할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이번 실행과정을 통해 실천가는 참여청소년에 대한 개별 사례관리가 필요하며, 이를 간과할 수 없음을 피력하였다. 2기 참여청소년 중 1명이 프로그램 외적인 문제로 인하여 활동 중반에 탈락하게 되었는데, 그에 대한 명확한 종결이 3기 활동 중에 이루어졌다. 역할 부담과 중도탈락에 대한 일련의 경험을 통하여 실천가는 참여청소년들의 이력이나 그들의 주변 환경에 대해 그동안 개입하기보다는 스스로 순응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지 자문하였다. 그 과정에서 실천가는 참여자들이 지닌 개별 문제들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그것이 인턴 프로그램 종결까지 연결됨을 지적하였고 연구진들도 동일한 의견을 제시했다.

- 클라이언트와 워커와의 관계가 고민이 많이 되어요. 여기에 더불어 교사로서의 역할, 부모로서의 훈육 역할이 고민되고. 스스로 참여청소년에게 무디어졌나? 생각했어요. 대상자의 이력이나 환경에 포기.. 순응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자문을 최근 했었어요. (실천가 평가회의 중, 10월)
- 참여자5도 가정문제가 있는데... (다른 프로그램)에서 다 해소가 안 되니... 그리고 여기서도 해소가 안 되니... 중도탈락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례관리 등 세부적인 것을 놓친 것 같아요. (실천가 평가회의 중, 11월)

이를 통해 실천가와 연구자는 추가적으로 사례관리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해야 함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실천가가 직업훈련 프로그램 운영과 사례관리를 병행한다면 업무과중에 직면할 수 있다. 따라서 프로그램은 직업훈련에 초점을 두고 사례관리는 기관 내 다른 부서와 연계하는 것이 실효성 측면에서 나을 것이라 판단되었다.

- 사례관리가 안 되었던 것은 사례관리 시스템이 없기 때문인 것 같아요. 무턱대고 참여자 관리로 뛰어드니..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실천가 평가회의 중, 11월)
- 사례관리로 참여자들을 모두 커버하기에는 인력이나 업무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중략) 사례관리 영역까지 가지고 들어온다면, 프로그램의 목적을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 생각해요. 또, 체계를 분리하여, 취업준비반으로 프로그램이 있다면, 그것과 별도로 사례관리와 자원연계.. 자원구축의 트랙이 있어야 업무 과중을 야기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해요. (연구자2 평가회의 중, 11월)

4) 연구자 측면 : 연구자에서 벗어나 참여자의 모습으로 함께 어울리기를 통한 내적 성장

연구진들은 3기까지의 활동을 전반적으로 점검하면서 실행과정에 대한 스스로의 참여정도를 고찰해 볼 수 있었다. 연구진들이 공통적으로 도출한 점은 연구 초기에는 학술적 연구결과의 도출에 몰입하여 관찰자적 성격이 강했다는 것이다. 물론 실행연구를 구조화하고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연구자로서의 관점을 견지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에 매몰되면 본 연구가 의도했던 참여 실행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음을 인지했다. 연구진들은 초기에 연구의 구조화와 실행과정에 대한 결과 도출에 급급해 참여청소년을 포함하여 연구 세팅을 대상화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실행연구의 모호성과 답답함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실행과정을 반복하며 참여자들과 점차 라포(rapport)를 형성하여 함께 어울리고 참여자로서 같이 활동하면서 연구진들은 스스로 안정감을 느낄 수 있었고 내적 성장을 경험할 수 있었다¹⁴⁾.

14) 물론 모든 실행연구에서 관찰자로서 연구자가 부정적인 것이며, 무조건적인 연구자의 참여가 강조되어야함을 언급하는 것은 아니다. 본 연구는 연구진이 반연구자이자 반실천가로서 함께 참여하는 것으로 연구의 틀을 설정하였기에 이러한 경험을 도출하였다.

- 처음에는 과연 내가 잘 가고 있는 것일까라는 두려움이 마음속에 있었어요. 다음에는 친근함과 편안함.. 초반엔 솔직히 낯설었거든요. 근데 점차 뭐랄까 친근함, 편안함, 기분 좋음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 후, 아이들의 모습이 안정적이었던 것 그리고 내 모습도 안정화되어 가는 것 같은.. 처음에 발이 이만큼 떠있으면 조금 내려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연구자1 활동평가 중, 12월)
- 사실 처음에 왔었을 때 제 마음은 문이 닫혀 있었어요. 너무 공부하는 걸로 접근하지 않았나 생각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보니 우리가 함께 한 활동사진 안에 내가 있더라구요. 내가 이 안에서 같이 있었구나.. 연구자로서 개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함께 했구나. 그러면서 한 걸음 걸지 않았을까 목표를 향해 한 걸음 나아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연구자2 활동평가 중, 12월)

IV.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참여 실행과정을 반복함으로써, 중도입국청소년의 바리스타 직업훈련(인턴십) 프로그램에 대한 구조화와 실천가, 연구자, 참여청소년들의 변화과정을 탐색해보았다. 연구 결과, 참여청소년들의 경우 바리스타 직무를 습득하는 등의 기술적인 직업 능력은 향상되었지만, 지속적인 언어 문제와 그들을 둘러싼 외부사건들의 발생, 생활시간 관리 등의 어려움에 직면함을 알 수 있었다. 더불어 실천가는 훈육자, 교육자, 훈련가 등의 다양한 역할수행으로 인해 정체성 고민을 지속할 수밖에 없었고, 이러한 역할의 혼동은 소진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참여청소년들의 긍정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역할부여 등 능동적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고, 이들의 고유한 상황에 대한 사례관리 측면의 개입이 이루어져야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자들은 실행과정에 대한 모호성으로부터 스스로의 역할을 고민하였으며, 원활한 참여적 실행연구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참여자의 모습으로 함께 어울리는 것이 중요함을 인지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현장에서 실천연구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극소수의 움직임만 보고되고 있는 현실에서, 연구와 실천개입의 중간자적인 맥락으로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적 실행과정을 시도해보았다. 본 연구는 실행과정을 통해 참여청소년, 실천

가, 연구자 측면의 변화를 살펴보았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이 제언해보고자 한다. 첫째, 중도입국청소년들에 대한 직업훈련은 언어 교육이 지속적으로 병행되는 지원체제로 구축될 필요가 있다. 중도입국청소년의 부족한 한국어 능력은 전문적인 직무와 관련된 언어 및 기술 습득에 어려움을 야기한다. 한국어의 취약성은 중도입국청소년의 진로준비행동에 많은 제약을 가하며, 때로는 중도입국청소년의 진로를 포기하게 만들기도 한다(오성배, 서덕희, 2012). 또, 그들의 연령 및 교육적 공백, 제도권 교육 밖 위치 등을 고려하면(류방란, 오성배, 2012), 한국어 습득은 상당 기간 동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때 만약 한국어교육 체계와 진로지도, 직업훈련 지원체계가 분절적으로 나뉜 경로로 구성된다면 노동시장으로 내몰린 그들의 진로욕구를 적시에 해소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직업훈련에 진입한 중도입국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유기적인 한국어교육의 지속적인 병행이 요구된다.

둘째, 직업훈련 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한 사례관리 차원의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참여청소년들은 그들이 지닌 고유한 이주배경 및 한국 내에서의 독특한 상황으로 인해 실행과정 동안 생활시간 관리가 어렵거나, 외부 사건들(폭력사건, 집안 문제 등)의 영향으로 프로그램 참여에 어려움을 보였다. 이는 중도입국청소년들을 둘러싼 개인적·가정적 환경의 불리한 여건이 그들의 적응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여러 선행연구들과 맥을 같이 하며(김민아 외, 2014; 류방란, 오성배, 2012; 오성배, 서덕희, 2012), 일부 연구자들은 사례관리의 중요성을 피력하고 있다(엄명용, 2013; 좌동훈, 2013) 본 연구는 사례관리가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실행하는 실천가에게 추가업무로서 부여될 경우, 실천가는 역할 과중 및 혼란, 소진을 경험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따라서 참여청소년들에 대한 사례관리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체계를 상호보완·연계할 수 있는 별도의 지원체제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 판단된다.

셋째, 실천과 연구의 결합인 참여 실행과정을 촉진하고 참여자들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연구 참여자들의 역할 설정과 협의, 스스로의 역할에 대한 인식, 능동적 참여가 중요하다. 그동안 실행연구의 유용성은 선행연구들에서 강조되어 왔다(김미옥, 2009; 남채봉, 2013; 이금진, 2005; 이시연, 1999). 그러나 실질적으로 실천현장에 실행연구가 접목된 경우는 드물었으며(이경아, 하경희, 유명이, 2009), 실행과정을 촉진할 방안에 대한 고민은 부족하였다. 본 연구 결과, 실천가는 관리자로서의 역할 수행에서 느끼는 혼동을 참여자들과 협의하고 재설정하는 과정에서 극복해낼 수 있었

으며, 연구자들이 지닌 실행연구에 대한 모호성은 활동에 함께 참여할수록 해소될 수 있었다. 참여청소년들은 역할부여에 따른 능동적 참여가 이루어질 때 성장할 수 있었다. 이는 반성적 실천과정인 실행연구가 이론을 실천에 수동적으로 접목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현장과 연구자들의 협력과 참여가 이루어질 때 창의적 대안을 이끌어 낼 수 있음(이경아 외, 2009)을 확인한 것이다. 따라서 참여자들이 실행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에 대한 고려가 중요하다.

끝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연구를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참여청소년들이 모두 남자들이었던 만큼 본 연구결과는 남자 청소년의 경우로 한정되어 생각해볼아야 할 것이다. 중도입국청소년을 구성하고 있는 독특한 상황은 성별에 따라 삶의 대처 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후속연구에서는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탐색적 연구이며 실행과정에 따라 연구가 점차 구조화 되었기에, 연구초기에는 실행연구의 타당성이 상대적으로 낮았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참여 실행연구는 나선형 구조의 점진적 발전과 발견적인(heuristic) 연구특성을 가지므로, 실행과정에 따라 타당성이 견고해지는 것이 개연적이다. 그러나 실행연구의 초기 구조가 명확할수록 실행과정을 통한 연구와 실천의 경계설정, 능동적인 참여, 목표와 결과의 의미 있는 도출 등에 이점이 있다. 특히, 사회복지 실천현장은 대상자와 기관, 정책 등의 고유한 환경적 맥락에 속하고, 실행연구는 실천현장과 유기적인 관계 내에서 독특한 연구 환경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후속연구들은 실행 전 연구 디자인의 구조화를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후속 연구들의 질적·양적 정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참고문헌

- 강대중 (2013). 중도입국 학생의 학교생활 분석: 다문화 대안학교 새날학교를 중심으로. **韓國實科教育學會誌**, 24(2), 215-234.
- 강현옥 (2013). **영아놀이활동적용 다문화가족 어머니의 부모역할 증진 프로그램 개발**. 청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김미옥 (2009). 사회복지학에서의 실행연구 적용과 유용성. **한국사회복지학**, 61(3), 179-204.
- 김민아, 이재희, 라미영, 김기현 (2014). 서비스 제공자가 인식하는 중도입국 청소년의 학교 적응 어려움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21(9), 147-175.
- 남채봉 (2013). 우리도 이야기할 수 있다: 청소년 참여 실행 연구가 다문화 시대 비판 시민 교육에 지니는 의의. **시민교육연구**, 45(2), 31-65.
- 류방란, 오성배 (2012). 중도입국 청소년의 교육 기회와 적응 실태. **다문화교육연구**, 5(1), 29-50.
- 서덕희 (2014). **한국의 이주배경청소년 진로지원 정책: 독일사례 비교를 통한 이주배경청소년 진로지원정책 모색**. 서울: 무지개청소년센터.
- 양계민, 조혜영, 이수정 (2009). **미래한국사회 다문화역량강화를 위한 아동·청소년 중장기 정책방안 연구 I** (연구보고 09-R14).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엄명용 (2013). 다문화가정 중도입국청소년의 한국 사회 적응 영향 요인. **한국가족복지학**, 42, 39-82.
- 오성배, 서덕희 (2012). 중도입국 청소년의 진로의식, 진로준비행동과 사회적 지원 실태 탐색. **중등교육연구**, 60(2), 517-552.
- 윤명숙, 조혜정, 박수영 (2012). 연변 조선족 청소년들의 부모와 별거기간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과 부·모 애착의 매개효과. **청소년복지연구**, 14(1), 113-137.
- 이경아, 하경희, 유명이 (2009). 정신장애인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사의 강점사정 적용에 관한 실행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33, 130-166.
- 이금진 (2005). 정신장애인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참여적 실행연구(PAR). **한국장애인복지학**, 2, 97-123.
- 이병철, 송다영 (2011). 다문화가족 중도입국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에 관한 질적 연구.

- 한국사회복지학, 63(4), 131-154.
- 이소라 (2012). **중도입국 청소년의 학업 문식성 신장을 위한 한국어 교재 개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시연 (1999). 사회복지 현장실습에서 실행연구모델의 적용 가능성. **서울長神論壇**, 14, 151-170.
- 이용숙, 김영천, 이혁규, 김영미, 조덕주, 조재식 (2005). **교육현장 개선과 함께 하는 실행연구방법**. 서울: 학지사.
- 조달영, 박윤경, 박선운, 박하나, 김재근, 장윤실 (2010).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급별 교육지원 방안 연구**.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 조복희, 이주연 (2005). 부모와 별거하는 중국 조선족 아동의 생활환경과 적응문제. **아동학회지**, 26(4), 1-15.
- 조복희, 이주연 (2006). 부모와 별거하는 중국 조선족 아동의 양육자에 대한 애착과 적응문제. **아동학회지**, 27(4), 1-17.
- 조용환 (2015). 현장연구와 실행연구. **교육인류학연구**, 18(4), 1-49.
- 조혜영, 양계민 (2012). 중도입국청소년 학업실태 및 진로포부에 대한 탐색적 연구. **청소년복지연구**, 14(3), 141-168.
- 좌동훈 (2013). **중도입국청소년의 사회문화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통계청 (2015). **e-나라지표: 외국인주민 현황**. <http://www.index.go.kr/>.에서 2016년 3월 2일 인출.
- Herr, K., & Anderson, L. G. (2005). *The action research dissertation: A guide for students and faculty*. London: Sage Publication.
- Kemmis, S., & McTaggart, R. (2000). Participatory action research. In N., Denzin, & Y. Lincoln (Eds.), *Handbook of Qualitative Research* (2nd ed.). London: Sage Publication.
- Reason, P., & Bradbury, H. (2001). *Handbook of action reaserch: Participative inquiry and practice*. London: Sage Publication.

ABSTRACT

A participatory action research study on the vocational experience activities of immigrant youth

Kim, Jinwon* · Song, Minkyong** · Lee, Seula*** · Yu, Meng****

This study explored the changes in the characteristics of participating youth, a practitioner, and researchers by means of a participatory action research project on the vocational experiences immigrant youth. Based on the action research spiral model, self-reflection activities were carried out. There were 12 participants in this study. During the implementation process, the technical proficiency of the immigrant youth clearly improved. However, they were confronted by persistent language problems, time management issues, and problems with external events. The practitioner experienced identity confusion due to the varied roles undertaken. The researchers recognized the issues of ambiguity and role confusion inherent in this kind of participatory action research project. In addition, the results revealed that active participation is important for the positive growth of all participants. Based on these results, the implications and suggestions for future work in this area were also discussed.

Key Words: immigrant youth, participatory action research, vocational experience activity, developmental self-reflection action

투고일: 2017. 2. 26, 심사일: 2017. 5. 2, 심사완료일: 2017. 5. 12

*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Sungkyunkwan University.

** Gangwon-do Woman & Family Research Institute, buta79@korea.kr.

*** Rainbow Youth Center.

****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Sungkyunkwan University.